[보도자료]

북한에 억류된 85세 한국전 참전용사 이야기

CNN 북한전문기자 마이크 치노이의 ‘마지막 전쟁포로’ 리디북스 독점 출간

리디북스는 2013년 북한이 억류했던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의 미국인 메릴 뉴먼 씨의 이야기를 다룬 전자책 ‘마지막 전쟁포로’를 독점 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은 전 CNN 북한전문기자 출신인 마이크 치노이 미국 남가주대 미중연구원 선임연구원(Senior Fellow)이 지난해 말 미국 아마존에서 전자책으로 출간해 ‘뉴욕타임즈’와 ‘가디언’ 등 해외 유수언론이 소개하며 화제를 모았던 책이다. 한국판 또한 국내 최대 전자책 서점인 리디북스를 통해 전자책으로만 번역 출간된다.

메릴 뉴먼 씨는 1953년 한국전쟁 말기, 북한의 후방 교란을 맡았던 반공 빨치산 부대였던 ‘구월산 부대’ 부대원을 훈련시킨 미군 장교였다. 그는 60년이 지난 뒤 미국인을 위한 북한 관광상품이 등장하자 자신이 젊은 시절 군인으로 참전했던 지역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북한 여행을 떠난다. 불행히도 뉴먼 씨는 지나치게 순진한 마음이었다.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베트남처럼 사람들이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뉴먼 씨의 얘기다. 북한을 잘 몰랐던 그는 평양에 도착한 뒤 북한 안내원들에게 구월산 부대원들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낸다. 구월산 부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내부 교란 작전을 맡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취급을 받는 부대였다. 85세 노인의 북한 억류라는 불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 책은 출간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바꿔 놓았다. 평범한 이웃이자 힘 없는 노인을 스파이로 몰아 억류시키는 북한의 경직된 태도는 한 때 뉴먼 씨같은 사람들에게 북한 관광까지 고려하게 만들었던 ‘개방되고 있는 북한’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바꿔놓았다. 또한 동시에 이 책은 평범한 국민을 지키는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된 뉴먼 씨의 상황을 뉴먼 씨의 가족들에게도 함구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뉴먼 씨의 상태를 알릴 수 있다는 관료주의 때문이었다. 뉴먼 씨는 억류중이라 당연히 서면 동의를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가족들은 뉴먼 씨의 안부도 모른채 애를 태우게 된다.

저자 마이크 치노이 씨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메릴 뉴먼 씨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관련인물 거의 전부를 인터뷰했다. 북한 전문기자로 활동했던 그의 경력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치노이 씨는 1989년 이후 북한을 15차례 방문한 CNN의 북한 전문기자였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과 세 차례 직접 만나 취재했으며, 1994년 북핵위기 당시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의 양자 회동을 단독 중계하며 극적인 위기사태 해결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 결과 이 책에서는 46일 간의 억류 사태를 둘러싼 주변 일화들이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면서도 긴박감 넘치는 필치로 묘사돼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느낌까지 준다. 특히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나 국무부와 CIA의 주요 인물들, 중국 외교 당국의 움직임까지 함께 등장하면서 이야기에 입체적인 재미를 더한다.

이 책의 번역은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들과 실리콘밸리 한인 기업인들로 이뤄진 뉴스 전문 번역집단 ‘뉴스페퍼민트’(newspeppermint.com)가 맡았다. 이들은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가 직접 내보내는 한국어 기사의 번역 계약도 맡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번역가들로 저자의 긴박한 필치를 한국어에 맞게 잘 살려냈다.

<추천사> 동아일보 주성하 북한전문기자(김일성종합대학 출신)

나는 탈북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붙잡혀 보위부 감옥을 비롯한 여러 감옥에 구금된 바 있다. 그래서인지 북한에서 외국인들이 억류됐다는 뉴스가 수시로 흘러나올 때마다 보위부가 과연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궁금했다. 이 책은 그런 나의 궁금증을 처음으로 풀어주었다. 동시에 북한을 잘 모르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력을 불러 일으켜 북한에 대한 흔치 않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인과 미국인에 대한 북한 보위부의 태도가 똑같지 않을 것이란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또 한 가지. 6.25전쟁 당시 구월산 유격부대의 고문관이 찾아와 유격부대의 생존자와 그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면 이는 북한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기 충분한 사건이다. 뉴먼 씨가 46일 만에 풀려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 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뉴먼 씨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가 찾으려던 구월산 유격부대 생존자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의 가족과 후손까지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 출신들로 이뤄진 반공 빨치산이란 북한 당국에게 있어 악질 반동 중의 반동으로 8촌까지 멸족해야 할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 이 일은 결국 미국 국무부와 전 세계 여러 언론, 괴짜 농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먼,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에게까지 연결된다. 또한 편집증에 가까우리만치 폐쇄적인 이 사회가 자신의 안위와 평판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알려주었다.

• 뉴먼은 당시 손자의 경고를 웃어넘겼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신이 너무 안이했던 점을 인정한다.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베트남처럼 사람들이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뉴먼의 말이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 실수였죠.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 그러나 국무부 해외시민 서비스 과의 한국 담당자 린다 맥페디언과의 첫 대화 후, 가족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갔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곤경에 처한 경우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뉴먼에게 미국 정부가 서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관료주의의 딜레마였다. 국무부는 뉴먼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비행기에서 끌려 나갔다는 밥 함들라의 이야기를 확인해주는 것 외에는 가족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다. 이미 불안에 떨고 있던 가족들은 크게 분노했다.

• 비디오카메라가 켜졌고, 뉴먼은 긴장으로 손을 떨며 진술서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당시 나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여럿 저질렀습니다… 여러 민간인과 인민군 병사를 죽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 시설들을 파괴하면서 북조선 정부와 인민들을 상대로 지울 수 없는 공격 행위를 범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관광이라는 핑계를 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입국했고… 뻔뻔하게도 생존한 참전 군인들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중략)…” 진술서를 다 읽은 뉴먼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진술서에 서명한 후 지장을 찍었다.

•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써준 영어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좀처럼 입에 붙지 않았다. 문법에도 맞지 않는 표현을 써주고 조사관과 통역관은 이 문장들을 달달 외워 자연스럽게 말해야 한다며 계속 뉴먼을 닦달했다. “결국, 도저히 못 하겠다고 말을 했죠. 당신들이 써준 어색한 영어 말고, 내가 평소에 쓰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허튼소리 안 하고 잘할 테니 믿어달라고요.”

• 하지만 이번에는 메릴 뉴먼이 백호부대 소속으로 구월산 유격대를 훈련한 고문관이었다는 사실이 남쪽에서 필요 이상의 주목을 받아 문제가 됐다. 서울에 있는 기자들은 다급히 뉴먼과 함께 구월산 유격대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찾아내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썼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한국전쟁 당시 극비 임무를 수행한 최정예 첩보부대 대장임이 밝혀져”와 같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이내 곳곳에 넘쳐났다.

• 미국으로 돌아온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뉴먼은 국무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 북한은 그가 양각도 호텔에 억류돼 있던 기간의 숙박비를 정산해 요금 청구서를 보냈다. 미화 총 3,241달러가 청구됐는데, 심지어 억류 기간 중 엿새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 하룻밤에 75달러를, 나머지 36일은 평상시대로 하룻밤 60달러를 매기는 꼼꼼함까지 보였다. … 뜯는 순간부터 기가 차는 청구서였지만, 잃어버린 적도 없는 접시 분실 보상비 3달러까지 항목에 포함된 걸 보고 메릴 뉴먼은 화가 치밀어올랐다. 뉴먼은 국무부에 이 돈을 내지 않으면 북미 관계나 혹시 북한에 억류된 다른 미국인들의 신변에 악영향을 끼치느냐고 물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뉴먼은 이 뜬금없는 억지 청구서를 무시하기로 했다. 청구서는 여전히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